선진양한 자연숭배류 제가(祭歌)의 기능 연변

육안기(양주대학 문학원)

요약

선진양한의 자연숭배류 제가는 종교, 사회와 정치의 다중 기능을 담당했으며, 역사 진행 과정에서 기능 중점의 변화가 발생했다. 자연숭배류 제가 작품에서 텍스트의 종교성은 전형적인 제사 의식 특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진양한 사이를 관통했지만, 전체적으로 하강 추세를 보였다. 사회성 기능은 춘추전국 이전에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성 기능은 국가 상징 구축의 정치 자원으로서 춘추전국 시기에 처음 나타났고, 이후 지속적이고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권력이 각 시기에 지속적으로 텍스트 형제와 제사 의식에 대해 제도 규범의 재조형을 진행한 데서 유래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성 서사에서 이데올로기 도구로의 기능 재구축을 완성하게 했다.

핵심어: 선진양한; 자연숭배; 제가; 기능연변

선진양한 내부의 시간단계 구분에 있어서, 현재 고고학 성과로는 하나라 및 그 이전에 명확한 문자 체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상나라 건립 시간은 불명확하지만 멸망 시간은 현재 학술계에서 상대적으로 확정된 시간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삼황오제부터 상나라 멸망까지를 하나의 전체로 구분한다. 즉 기원전 7975년-기원전 1046년이다. 이에 비해 서주(기원전 1046년-기원전 771년)와 춘추전국(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 시기는 제가 텍스트의 보존 상황이나 사회정치 구조

면에서 모두 현저한 시대 특징을 보여 서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연구 단원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진대의 경우, 비록 제가 텍스트의 확실한 기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제사 제도가 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진한(기원전 221년-기원 220년)을 동일한 역사 단계로 병치하여 고찰한다.

소위 자연숭배류 제가는 자연 요소(이를 미화하여 형성한 자연신 형상 포함)를 제사 대상으로 하는 관방 제가를 가리키며, 인격화된 인조신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송·경지》의 "회유백신, 급하교악(懷柔百神 , 及河喬嶽)"에서 '하(河)', '교악(喬嶽)'은 전형적인 자연 요소이고, 《구가》의 "사공자혜미감언(思公子兮未敢言)"과 같이 명백한 인류 감정을 띤 상부인은 자연 요소 및 자연신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전세 문헌 정리와 현대 관련 자료 참고를 통해, 본문의 연구 텍스트는 총 34수이다.

상 및 이전에는 자연숭배류 제가로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이 4수 있다. 즉 《납사》, 순이 부른 《사전사》와 《남풍가》, 상탕의 《도우사》이다. 서주 시기는 총 11수로 모두 《시경》에 수록되어 있다: 《사문》, 《신공》, 《의희》, 《풍년》, 《재산》, 《량사》, 《사의》, 《반》, 《보전》, 《대전》, 《아장》이다. 춘추전국 시기는 3수로 《초사·구가》의 《동황태일》, 《예혼》이 있고, 또 춘추시기 은상 후예가 창작한 《장발》이 있다. 진한 시기는 총 16수인데, 그중 14수는 한 《교사가》의 편목이다: 《연시일》, 《유태원》, 《천지》, 《일출입》, 《천마》, 《천문》, 《경성》, 《제방》, 《후황》, 《화엽엽》, 《오신》, 《조롱수》, 《상재유》, 《적교》이고, 또한 《영지가》와 《현인무》가 있다.

현재 학술계의 선진양한 제가 연구는 대부분 문헌 고증, 문학예술 및 음악사 구축, 정치제도와 예제 천명 등 방면에 집중되어 있고, 그 기능 구조의 연변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하다. 왕국유, 조복림은 모두 선진 사회의 변천에서 각 시기 사회제도(특히 왕권 교체 방식)가 제사의 목적과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고힐강도 중화민족의 문명 전승 방식이 원래 문화 기초 위에서 수선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더 능숙하며 추번중건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제사 문화 자체가 역사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연화하고 있으며, 그 기능 구조는 필연적으로 당시 사회 수요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일 것이다. 장수국은 《악무와 의식》에서 제가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가가 무술성, 종교성, 윤리성 및 오락성의 가무 형태라고 제기했는데, 비록 제가의 역사적 깊이를 강조했지만 그 기능 구조와 사회 실

천의 관련 방면에서는 더 나아갈 공간이 있다.

따라서 제가의 기능에 관해, 여러 학자가 다른 각도에서 진행한 기존 탐토와 선진양한 자연숭배 제가 창작의 원시 목적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초자연 역량(조선신귀와 당시 과학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연 현상 지칭)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종교성; 2. 교화와 인문 관회를 주로 하는 사회성; 3. 통치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고 통치자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성.

34수 제가 텍스트의 주요 기능 분석 후, 상 및 이전의 자연숭배류 제가는 강렬한 종교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초기 통치자의 인문 관회를 체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주 시기에 이르러 종교 기능이 여전히 돌출되었고, 지식 획득과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인문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성 제가와 종교성 제가 사이의 수량 차이가 작아졌다. 그러나 춘추전국부터 자연숭배류 제가의 사회성 기능이 소산되기 시작하고, 대신 정치 합법성 구축에서의 도구화 전향이 나타났다 - 비록 종교성이 여전히 주도를 차지했지만 정치성 표달이 날로 부각되었다. 진한에 진입한 후 제가의 정치성과 종교성이 병중 추세를 보였고, 그 텍스트는 더 이상 단지 오신기복의 용도가 아니라 황권 의지, 국가 정통과 우주 질서 관념의 중요한 표달 수단이 되었다.

단지 각 시기 제가 텍스트의 절대 수량으로 분석하면 기능 추세를 직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문은 진한의 441년을 기준으로 각 시기의 시간 비례를 계산했다. 즉 '상 및 이전:서주:춘추전국:진한'이 '15.7:0.63:1.24:1'이고, 이에 따라 각 시기 제가 텍스트의 절대 수량을 등비례 환산하여 최종 구성한 추세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선진양한 자연숭배류 제가 기능 추세도 – 생략]

도표를 통해 자연숭배류 제가의 종교성과 사회성 기능이 서주 이후 신속히 쇠미하고, 대신 정치성 기능이 점차 강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관방 자연숭배류 제가 텍스트의 창작 과정은 창작 주체가 어떤 창작 목적에서 자연 요소나 자연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창작 주체, 창작 목적, 대상 선택 세 방면에서 선진양한 자연숭배류 제가 기능의 연변을 탐토한다.

1. 창작 주체: 왕무합일에서 국가 전직 기구로

중국 고대 제가 발전의 역사 과정에서 창작 주체는 현저한 전변을 경험했는데, 왕무합일 시대의 개체 창작에서 점차 국가 전문 기구가 책임지는 집체성 생산으로 연변했다. 초기 제가는 왕왕 통치자나 무장이 직접 주도하여 창작했는데, 이런 개체화 특징은 신권 정치와 고도로 결합하여 강렬한 원시 종교성을 체현했다. 《납사》는 신농씨나 요가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는 초기 부족 수령이 친히 축도사를 제정한 전통을 반영한다. 《예기·예운》에 기재하기를:

납제에는 팔신이 있으니, 선색이 일, 사색이 이, 농이 삼, 우표제가 사, 묘호가 오, 방이 육, 수용이 칠, 곤충이 팔이다.....이기씨는 고천자의 호이다. 기는 거이반이니, 혹 운 '즉제요'라 한다. 정의왈: 명당운: "토고, 위로, 이기씨지악." 예운운: "부예지초, 시제음식, 궤부이토고." 구칭 '토고'하니, 즉 이기씨는 신농이니, 이기초위전사고위납제이보천야. 하운 '주선색'하니, 신농즉위시납, 기자제기신이위선색호? 황씨운: "신농, 이기일대총호, 기자손위천자자시위납제, 제기선조조전자, 고유선색야."

여기서 제사하는 팔신과 강조하는 선색 관념은 모두 농사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기'는 실제로 천자의 대칭인데, 신농이든 요든 모두 제가 텍스트가 통치자 개체 제사 실천에서 유래했음을 체현한다. 그리고 통치자는 신직 신분으로 종교 의식의 제일 집행자이자 텍스트의 조형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문심조룡·축맹》에 기재된 순이 이민지지에서 사전지제를 지었는데, 가사 내용 "하차장사, 경피남무, 사해구유(荷此長耜 , 耕彼南畝 , 四海俱有)"는 통치자가 친히 노작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그 교화 기능과 왕도 이념을 돌출시킨다. 순은 개인의 지로 사람과 자연, 정교와 농사를 연결했고, 제가는 기복 성질을 가지면서도 민본의식을 강화하는 정치 의의를 가진다. 《남풍가》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남풍지훈혜, 가이해오민지온혜; 남풍지시혜, 가이부오민지재혜(南風之薰兮 , 可以解吾民之慍兮 ; 南風之時兮 , 可以阜吾民之財兮)"로 자연 기후에 대한 축도를 표달한다. 이 노래는 비록 서정성이 비교적 강하지만, 본질상 여전히 통치자 개인이 자연에 원망을 표달하는 종교성 언사로, 왕즉무장의 신직 신분이 시가 창작에 직접 개입했음을 체현한다. 이 시기 왕즉무장으로, 신권 정치 하의 시가 창작이 체현하는 것은 개체와 신령 사이의

소통 중개이다.

서주 예악 제도의 확립에 따라 종교와 정치의 분화가 가속되고, 제가의 창작 주체는 점차 개체에서 직관 체계로 전향했다. 주례 계통은 전직 제사 문사를 담당하는 축관 군체를 설립했는데, 대축이 통령하여 순축, 년축, 길축 등 다른 장경의 사장 찬술을 장관하고, 소축, 상축, 전축, 저축 등은 각각 특정 의식에 대해 텍스트 창작을 진행했다. 《문심조룡·축맹》에 기재하기를:

급주지태축, 장육축지사, 시이서물함생, 진어천지지교; 방작목목, 창어영일지배; 숙흥야처, 언어부묘지축; 다복무강, 포어소뢰지궤; 의사류체, 막불유문. 소이인건어신기, 엄공어종묘야.

이는 이전 중교화의 제가 텍스트와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비록 자연 요소를 제사 대상으로 하지만 그 풍격이 숙목하여 제사의 위의를 강조한다. 가견 이 시기의 제가 텍스트가 무술 구술에서 국가 규범성 표달로 과도했고, 문자 내용이 예제화 추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제가가 정치와 종교 질서에서의 상징 작용도 더욱 돌출되었다.

이와 동시에 무술 문화가 변연화되고 악관이 흥기했다. 악관이 의식 음악과 연창의 역할을 담임하여 원래 무를 주체로 한 제가 집행이 분공 명확한 예악 체계로 전화했다. 이런 직관화와 제도화의 전변은 제가 텍스트가 국가 언어의 합법성 구축임을 표지한다. 제가를 왕자 개체의 신령에 대한 사인 축도에서 국가 기구가 통일 창작과 집행하는 축사가 되게 하여 국가의 집체 의지를 상징한다.

춘추전국에 이르러 예붕악괴의 정치 변국이 제사 권력 중심을 제후로 유향하게 했고, 사회성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정치성 기능이 그 왕권 상징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부각되었다. 《춘추좌전》에 "국지대사, 재사여융(國之大事 , 在祀與戎)"이 있는데, 당시 '사'의 주도자는 실제로 이미 주천자에서 제후로 전향했고, 대내로 방국 역량을 응집하고 대외로 주권을 선시하는 상징 중 하나가 되어 실제 장권자의 제사 체계에 대한 중시와 장공을 현현했다.

진한 이후 국가의 제사 가사에 대한 관공이 더욱 엄밀해지고 창작도 더욱 제도화되었다. 특히 한대가 진조의 악부 기구 설립을 계승한 후 국가가 전문 관원을 파견하여 민간 가요를 채집하고, 스스로 대량의 제사와 조회에 사용할 시사를 창작하고 연출했다. 한 《교사가》는 바로 이런 제도 틀에서 탄생했다. 《한서》에 기재하기를:

지무제정교사지례, 사태일우감천, 취건위야; 제후토우분음, 택중방구야. 내립악부, 채시야송, 유조, 대, 진, 초지구. 이이연년위협률도위, 다거사마상여등수십인조위시부, 략론률려, 이합팔음지조, 작십구장지가.

이연년이 음률을 주관하는 것을 책임졌는데, 음악 연주를 파악하는 외에도 시사의 률려 배합과 예악 규범의 창제를 담당해야 했다. 사마상여 등이 시부 창작을 책임졌는데, 문인이 참여하는 국가 의례 사작을 표명하여 정치 복무형 문학의 추형을 강화했다. 제가 창작의 모식은 관방 파공, 지식 군체가 창작을 담당하는 것이 되어 왕무합일의 원시 배경을 철저히 탈리했다.

선진에서 양한까지의 제가 창작을 종관하면, 개체 제사에서 국가 의식으로 연화하는 궤적을 청석히 볼 수 있다. 초기 왕자가 무직을 겸하여 개체 신분으로 신명에 대한 가영과 기도에 직접 개입했고, 제가는 그들이 천지와 소통하는 언사 형식으로 선명한 종교성을 가진다. 예악 제도의 건립과 종교 권력의 거개인화에 따라 창작 주체는 점차 관료 계통이 분공협작하는 전직 군체로 전화했고, 제가 텍스트는 정치 질서를 규범하고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진한 시기에 이르러 악부 체제의 확립과 지식 군체의 전면 개입에 따라 제가 사작은 국가 이데올로기 공정의 일부가 되었고, 그 창작 주체는 신권, 왕권 합일의 개인에서 왕권, 정치, 제도가 공동 구건한 관방 문화 기제로 전변했다.

이런 전변은 제가가 신성 구어에서 제도 텍스트로 천이했음을 체현할 뿐 아니라 국가가 제사 화어를 전면 수편했음을 표지한다. 제가는 더 이상 수령의 독백이 아니라 국가 의지의 심미화 표달이 되었다. 그것이 표달하는 것도 단지 풍조우순에 대한 기원만이 아니라 예악 형식에 정치 합법성의 구축과 전파를 감입한 것이다. 이 창작 주체의 변혁은 바로 선진양한 국가가 제도화 수단을 통해 제사 문화를 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통일한 관건 보주이다.

2. 창작 목적: 신화전설에서 덕정송가로

하상 시기 종교 기도를 핵심으로 한 신화성 제가는 서주 이후 점차 사회 교화와 정치 합법성 선시로 전향했고, 제가의 기능은 종교성에서 사회성, 정치성의 다중 첩

합과 전화를 보였다. 하 및 그 이전의 제가는 자연 숭배를 주로 하여 강렬한 종교성 특징을 체현했다. 조복림은 하상 시기의 시대 주제가 추구하는 것이 미, 선량, 화해라고 지적했지만, 하 및 이전의 자연숭배류 제가의 도향 방법은 상과 다소 달랐다. 《사전사》, 《남풍가》와 《납사》는 모두 농경 생산 중의 자연 현상에 직접 축원을 표달했고, 상탕의 《도우사》는 이렇게 썼다:

정불절여? 사민질여? 하이불우지사극야!

궁실영여? 부알성여? 하이불우지사극야!

포저행여? 참부흥여? 하이불우지사극야!

상탕은 반성자책의 방식으로 하늘에 기우했는데, 한재를 자신의 정사 실당에 귀인했다. 《은허복사종술》의 정리에 따르면, 상대 갑편에는 구우에 관한 원시 자연 숭배 활동이 대량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왕고왈: 금석기우?" "을해우? 윤우" "정아무, 우" 등이다. 이런 복사는 신명 의지를 직접 소통하는 의식 언어로서, 기록된 점복 사건을 통해 제사자가 종교 수단으로 자연에 회응하는 사유 방식을 체현했는데, 상탕 《도우사》의 자성 논리와 상호 호응한다.

따라서 《도우사》의 내용이든 갑골복사 중 산천신령에 대한 기도 기재든 모두 상대 정치 중심이 아직 종교가 주도하여 자연을 통섭하고 재이에 회응하는 단계에 처해 있음을 공동 반영한다. 문자는 이 단계의 주요 기능이 정치 선전이나 사회 교화가 아니라 의식 중의 신의 매개였다. 이런 텍스트 기능상의 일치성은 상 및 이전 시기 자연숭배류 제가의 창작 목적이 기도와 감신을 핵심으로 하고 아직 명확한 정치 합법성 표달 기제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더욱 인증한다.

이런 '천'을 자연 현상의 통관으로 삼는 관념은 고힐강이 말한 은상인이 시조 이전이 사람임을 승인하지 않고 다른 종족과 공동 조선이 있음을 승인하지 않는 신앙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인에게 선조가 신성을 가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통치자 자신은 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상조 시기 자연숭배류 제가의 정치성은 실제로 강하지 않았는데, 수령의 통치가 후세 이른바 '천인합일'에 의거하여 가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주에 진입하여 제가의 창작 목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째, 제사 대상이 자연신령에서 대량 혈맥 조선으로 전향했다. 둘째, 설령 자연 요소와 관련되어도 더 많이

사회 교화와 정치 의지의 내용을 융입했다. 《시경·주송》에서 《풍년》의 "풍년다서다자, 역유고름, 만억급자", 《재산》의 "유략기사, 숙재남무, 파궐백곡", 《량사》의 "진진량사, 숙재남무. 파궐백곡, 실함사활"은 이런 작품들이 농사 생산에 긴밀히 매달려 근로 경작과 사회 질서를 강조하여 인문 교화의 사회성 기능 특징을 체현한다. 《호천유성명》의 "어집희! 단궐심, 사기정지", 《시매》의 "윤왕유후", 《반》의 "시주지명" 등 구는 명백히 왕조 창성, 통치 장구를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치 기능을 돌출시킨다. 이때 '시언지'의 사상이 이미 《상서》에 보이는데, 시가와 음악의 최종 목적이 사회 질서와 신인 화해를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했고, 제가도 질서 유계, 군체 교화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기로 하여금 악을 제작하고 교수하게 한 배경에서 '시언지'는 종교 기식을 가지는데, '지'는 원시 종교 관념의 영향을 받아 일종 집체 의원으로 질서 정신에 계합하여 제가가 종교 의식에서 추구하는 천인 소통, 사회 화해의 기능과 상호 호응한다. 가견 당시 제가가 말하는 '지'도 유사하게 사회 군체, 질서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춘추전국 시기 사회가 급극 변천하여 개체 정신이 군체 의식을 대체했고, 자신의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고하고 전개하는 제가 문학 창작이 나타났는데, 굴원이 이류 제가 창작 주체의 대표이다. 기재에 따르면 《구가》는 굴원이 민간 제가가 비속하다고 여겨 가사를 중작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구가》 중 자연 요소를 제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동황태일》과 《예혼》 두 편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격 감정을 가진 신령인데, 비록 굴원의 개인 의지를 체현하는 데 편중하지만 그가 민가 비속으로 가사를 중작한 행위 자체는 여전히 사회 인문 교화 기능의 수호로 볼 수 있다. 이 행위는 서주 이래 사회 교화를 강조한 전통 의의의 연속을 가진다.

진한 이강, 특히 서한 시기에 제가의 정치성이 고봉으로 추향되었다. 《한서·교사지》에 "홍범팔정, 삼왈사. 사자, 소이소효사조, 통신명야"가 있지만, 동시에 《교사가》에 대한 평가는 "미유조종지사"로 한대 제가가 실질상 더 많이 황권 합법성의 선시에 복무했음을 표명한다. 《천마》편의 "천마래, 종서극, 섭류사, 구이복"은 한무제가 무력으로 서역을 정복한 무공을 말한 것이고, 《경성》, 《제방》 등 편장은 자연 이상으로 당조 정권의 신성성을 좌증한다. 《한서》에 기재된 한무제가 "정교사지례", "작십구장지가"한 것은 한무제 시기 제도화 수단을 통해 국가 예제 계통을 중구하여 제사 시간,

복제 의례에서 가사 내용까지 전방위 정합을 진행했음을 설명한다. 이 배경에서 정문이《한시연구》에서 정리한 것과 결합하면《교사가》의 창작이 일시지작이 아니라 30여 년을 경력하여 한무제가 의식적으로 악관을 조직해 역년 소작 악가에서 선취, 편찬한 것이고, 그 가사도 의식적인 사선을 거쳤음을 증실한다.

정례에서 제악까지 한무제는 국가 명의로 텍스트 생산을 주도하여 시가 화어권의 중신 분배를 완성했다. 원래 응당 의례 중 감신응천의 악가였던 것이 이때 이미 통치자 의지가 소조한 정치 언어로 연변했다. 제가 텍스트가 기록 신명에서 구축 정권으로 전향한 것은 한대의 예악 계통이 이미 단지 천명 소통의 매개만이 아니라 국가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음을 표지한다.

하상에서 진한까지 제가 창작 목적은 신기 숭배에서 덕정 송양으로의 역사성 전향을 경력했다. 초기에 자연신령을 사로 삼고 기우구년을 핵심으로 한 종교성 제가는 신의에 대한 의부와 감소를 돌출시켰고, 아직 정치 합법성 구축의 직책을 담당하지 않았다. 서주 이후에 진입하여 '시언지' 관념의 흥기와 예악 제도의 계통화에 따라 제가는 점차 정치 교화와 사회 규범의 기능을 융합했다. 특히 한조에 이르러 국가가 정악장, 개정삭, 조직 편찬 제가 등 수단을 통해 의식적으로 제가를 천명신수, 황권신성을 소조하는 정치 서사 도구로 전화시켰다. 제가는 수령과 신명 사이의 교류 교량에서 권력 화어 체계의 재체로 변했는데, 제가의 창작 목적이 감신에서 술공으로 전향했음을 표지한다. 이 연화 궤적은 자연숭배류 제가의 기능이 종교성에서 날로 정치성으로 응집했음을 청석히 반영한다.

3. 대상 선택: 다신범령에서 '천'과 '지' 핵심의 질서 신기로

하대 및 더 이른 시기의 제가 내용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이 제사한 대상은 명백히 수령 자신을 초월한 신성을 전현하지 않았다. 이 현상의 근원은 원시 사회에서 수령 자체가 천연적으로 초범 능력을 구비한 존재로 시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제사 관념은 매우 큰 정도로 초기 다신범령의 세계관을 체현했고, 원시 사회의 인신 관계가 아직 철저히 구분되지 않았다.

상대에 이르러 지고무상의 '천' 개념이 점차 확립되어 신권 질서화의 중요한 일보를

표지했다. 상탕《도우사》에서 그는 개인의 죄로 하늘에 관서를 기구하여 지고신기 '천'에 대한 경외와 책임 인지를 현시했다. 제사 대상은 더 이상 범령성의 존재가 아니라 지상 권위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 사무를 주재할 수 있는 신력 상징이다. 이 변화는 상대 왕권과 신권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왕권이 고연 여전히 신성을 구비하지만 신권을 왕권의 합법성 내원으로 삼아야 한다.

서주 시기 신령에 대한 존숭이 전기보다 더 심했지만, 상대와 달리 서주인은 더욱 조선의 역량을 상신했다. 주대 전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조선 제사 텍스트 기재도 이때 조선 신앙이 이미 관방 예제의 일부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런 경향도 중화민족 전통 종교성이 비교적 약한 중요한 원두 중 하나가 되었는데, 즉 위대한 조선 후예로서의 자기를 상신하고 - 신령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 외부 상해를 저어할 충분한 실력을 옹유한다는 것이다. Voyant Tools 텍스트 분석 플랫폼을 통해 서주 시기 자연숭배류 제가 텍스트를 분석하여 다음 사운도와 고빈 문자 분석을 얻었다:

[그림2: 서주 자연숭배류 제가 텍스트 사운도 - 생략]

[그림3: 서주 자연숭배류 제가 텍스트 고빈사 목록 - 생략]

텍스트에서 '신' '제' '령' 등 자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후' '왕'과 같이 인류사회에 납입된 각색이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즉 서주 시기에 설령 자연요소를 제사 대상으로 해도 그 목적은 여전히 통치 계급을 위해 기복하는 것으로 강렬한 정치성을 가지며 순수한 종교 행위가 아니다.

평왕동천 후 주실쇠미, 예붕악괴로 원유 제사 질서도 따라서 송동했다. 이런 역사 배경에서 초국은 제사 전통에서 여전히 강렬한 의식 의식을 보유했는데, 특히 굴원이 대표적이다.《초사·구가》에서 대량의 자연 요소에서 연생한 인격화 신령이 용현했는데,《상군》,《상부인》,《운중군》 등등 모두 자연 현상을 의인화하여 신성을 부여했다. 이는 초지 "신귀이호사"의 전통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전국 시기 신령관의 혁신도 전현했다. 마찬가지로 Voyant Tools로《구가》 텍스트를 분석하면:

[그림4:《구가》 텍스트 사운도 - 생략]

[그림5:《구가》 텍스트 고빈사 목록 - 생략]

도4, 5에 따르면 '령'의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여 사용률이 '여'에 버금가며 서주 시기와 완전히 다른 텍스트 구성을 전현했다. 제사 대상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사 대상의 칭위에서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다. 고힐강은 일찍이 '황'자가《초사》에서 신을 칭호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황'자가 서주 제가 문화 체계에서는 형용사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계서기황지"(《열문》), "어황무왕"(《무》), "우황시주"(《반》) 등은 모두 미호, 위대, 광명을 가리키며 칭위가 아니다. '황'자로 지고 신기를 전지하는 것은 인신획계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고힐강은 이런 시세 변천과 고사 전설 변천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주의하여 전국시 광열하게 고사를 제조하여 인위적으로 허다한 제황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문일다도 그의《신화와 시》에서 복희와 여와의 이름이 전국시에 비로소 기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제(황제,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 계통이 정식으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연용되었다.

비록 한조가 전체적으로 억주의 경향을 정현하지만, 제가 텍스트 방면에서 한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여전히 전국이다. Voyant Tools로 한무제가 주지편창한《교사가》의 텍스트 분석은 이 특점을 청석히 볼 수 있다:

[그림6:《교사가》 텍스트 사운도 - 생략]
[그림7:《교사가》 텍스트 고빈사 목록 - 생략]

도6, 7로 보면 전국 시기 령에 대한 존숭을 계승한 외에 한조는 또 '신' 이 대상을 증가했다. 이 둘은 텍스트에서 실제로 태대한 사용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교사가·연시일》에 "령지유" "령지하" "령지래" "령지지" "령이좌" "령안류"가 있고,《교사가·화엽엽》에 "신지유" "신지출" "신지행" "신지래" "신지유" "신안좌"가 있다. 텍스트 체식이든 묘술이든 둘은 거의 상동하다.

물론 시간의 추이에 따라 천신에 대한 숭경 외에도 자연 우주의 또 다른 구성 부분 - 지에 대한 철학 사고도 점차 계통을 형성하고 있었다. 진한 시기 오행 관념의 연변

도 제사 대상 질서화의 중요한 일환이다. 최초 진조는 자인위 오행종시지변을 승계하여 수덕을 봉행하고 흑색을 존으로 삼았으며 예의 제도도 다유 수덕을 의거로 삼았지만, 이때 오행과 제사의 관련은 아직 십분 긴밀하지 않았다. 한고조가 흑제사를 증설한 후 완정한 백, 청, 황, 적, 흑 오제사를 형성하여 오행상생상극의 내부 연결에 대응했다. 한문제 때에 이르러 공손신이 제출하기를 기왕 한이 천하를 승계했으면 응당 토덕을 상하고 황색을 숭상해야 한다고 했다. 오행 전환 관계와 정치의 일일 대응은 실제로 자연 질서를 신성화,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천하에 본조의 통치가 오행상생상극의 규률에 부합하고 천명에 순응함을 소시하여 이로써 통치 계층의 권위를 강화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왕조의 통치가 신성불가침범의 지위를 가진다고 상신하게 한다. 이는 주 이전 수령이 자연적으로 신성을 띤 경황과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양한의 자연숭배류 제가의 정치성이 십분 농후하다.

《교사가》에서 《제림》이 통령하고 후사편 형제통일이고 내용상 수미상구하는 《청양》《주명》《서호》《현명》은 각각 황, 청, 적, 백, 흑 오제에 대응한다. 이조 제가는 모두 12구 4언인데, 《제림》의 편수편미 외에 기여사편은 모두 편수에 대응 계절의 자연현상을 강술하고, 편중에 인사를 강하며, 편미는 신명의 복지를 가송하거나 신명에게 비호를 기구한다. 그중 인사는 많이 한무제 당조의 정적인데, 예를 들어 "청화육합, 제수이오. 해내안녕, 흥문언무"(《제림》), "간위불맹, 요얼복식, 우벽월원, 사맥함복"(《서호》)과 "역란제사, 혁정이속, 조민반본, 포소회박"(《현명》)은 한무제가 남월을 멸하고, 동월을 천하며, 조선을 평정한 무공과 이민을 수복하고 내란을 평정한 후 진행한 발란반정, 개제이양풍속을 선양했다.

범령 신앙에서 질서 신기로, 선진양한 제사 체계의 연진이 신명 보계를 중소하여 왕권 합법성 구축의 축층 추진을 영사했다. 원시 사회에서 인신이 혼거 상태에 처하여 신에 대해 절대 초월, 지고무상의 인지 개념이 없었다. 상주에 이르러 '천'과 조선의 지상 지위를 확립하여 왕권이 신권에 대한 의뢰와 순화를 실현했다. 전국 시기 인격화 신령이 대량 출현하여 신기 체계 인지가 개체 감정과 문화 상상의 접납과 흡납을 반영했다. 진한에 이르러 오행 관념이 관방 예제에 납입되어 신기 체계가 국가 질서를 가진 자연 상징이 되었다. 제사 대상의 변화는 단지 숭배 내용의 경체만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연 질서를 신성화하여 자신의 합법성을 완성하는 과정

이다. 이에 제사 행위는 일찍이 감신위령의 종교 초충을 초월하여 국가 주권 서사와 문화 통일 기제의 중요한 구건이 되었고, 제사 대상의 선택도 따라서 규범화, 중심화와 도구화로 나아갔다.

결어

선진양한 시기, 자연숭배류 제가의 기능은 종교성이 사회성을 융합하고, 다시 정치성을 융합하며, 최종적으로 정치성을 주로 하는 복잡한 연변을 경력했다. 초기 제가는 범령 신앙과 무축 전통에 식근하여 주로 수령 개체의 자연신령에 대한 감응 기도로 표현되었고, 선명한 종교 의식성과 초급 사회 응집 기능을 가졌다. 상주 시기에 진입하여 신권 질서의 확립과 조선 숭배의 제도화에 따라 제가는 더 명확한 사회 교화 직능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족군 인동과 예제 규범을 강화했다. 춘추전국 이후 정치 질서의 중구를 수반하여 자연숭배류 제가의 사회성 기능이 점차 퇴은하고 정치성 표달이 날로 현저해졌다. 진한지제에 이르러 국가가 정예악, 립교사, 편시장 등 제도화 수단을 통해 제가 텍스트의 생산을 전면 주도하여 군권신수 서사의 중요한 매개가 되게 했다.

이런 기능 연변의 역사 과정은 국가 권력이 제도화 수단을 통해 자연 숭배를 정치 합법성 서사 중에 납입한 선변을 게시했다. 진관 종교 의함이 종래 제가 어경에서 완전히 퇴출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승재한 신성성은 이미 점차 왕권의 상징성 자원으로 전화하여 중국 고대 제사 문화가 텍스트 층면에서 종교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의 역사 약천을 실현했음을 표지한다.